

지역 소식통

정읍시, 코로나19 극복 영농바우처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지원에 나선다.

시는 13일 "관로 제한과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영지를 위해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화훼 농가·겨울 수박 농가·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말 생산 농가·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분야의 383개 농가다.

해당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바우처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14일부터 신분증과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지금 대상자가 선정되면 5월 14일부터 농·축업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의료기관과 농업 공구, 주유소, 음식점 등 지참제 제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 7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달 28일 버스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과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나 자신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올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4월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자이다. 다만,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안정자금 신청 기간은 19~28일까지로,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고창군으로 신청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

고창군 운곡습지, 람사르습지 등록 10주년... 생물다양성 증가·엔택트 관광지로 인기 등 성과

고창군 운곡습지가 올해 람사르습지 등록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사례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일원의 '운곡습지'는 과거 논 경작지가 폐경으로 인해 자연복원된 산지형 저층습지다. 2011년 3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4월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등록면적은 1,797km²다.

이후 고창군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민간에선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회가 설립돼 자발적 주민 규약과 실천규약을 제정하며 습지복원,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생태계 교란 물질 제거 등에 앞장섰다.

군에서도 습지 복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2010~2018년)',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2014~2017년)'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물다양성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 기준 습지의 생물종은 830여종(국립환경과학원 정밀조사)으로 2010년 습지보호구역 지정 전 527종보다 대폭 늘었다. 특히 수달, 구렁이 등 12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사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운곡습지 주변마을이 대한민국 치유형 농촌관광의 대표모델로 뜨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창운곡습지 일원 용계마을·호암마을 등 6개 마을에서 진행된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현장 적용' 결과,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해는 운곡습지 홍보관,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텔, 운곡습지 탐방 열차를 운영하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생태관광지로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붐비지 않는 엔택트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2019년 대비 방문객이 1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군은 올해도 지역주민들과 협력해 ▲운곡습지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논둑 복원(120m)을 통한 습지복원 ▲습지 모니터링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반딧불이 주간운영(6월/9월 예정), 습지의 날 기념 주간운영(5월 마지막 주), 온라인 탐방 체험기반 조성으로 습지의 중요성을 전 국민들에게 알려낸다.

이제 고창군은 운곡습지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최초 '람사르습지도시'에 도전하고 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시 '람사르' 상징(브랜드)을 6년간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물관축, 생태관광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또 습지보전이용 시설,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지속적인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정읍시청 전경)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감면한다

정읍시,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 23일까지 집중 접수기간 운영

정읍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 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소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이 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단 관련법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경우 역시 제외한다.

신청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급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신청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14일부터 23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해 착한 임대인들이 간편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고창군의회는 13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4월13일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지난 10년 동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항"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냉각수를 주입해 왔고 이를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인류 전체와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영향·피해의 책임을 떠넘기는 도를 넘은 만행으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 강력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즉각 철회, 일본정부의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 공개, 오염수 처리 방안 국제사회와 즉각 협의, 우리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전 세계를 향한 핵 테러로 규정하고, 일본이 더 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법적, 물리적 조치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며 "일본의 도발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제321회 임시회 개최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공중도 조기개발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황 청취 및 방문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

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 필요한 만큼 사업장 방문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임시회 첫날 김광수 의원과 김정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건의안을 통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버스승강장 비탈막이 설치 사업의 확대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열악한 지방

재정을 돕고 우리 사회의 상생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문찬기 의장은 "모든 일은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군민 만족도와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만큼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양식어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자 모집

고창군 관내 양식장에 보급된 에너지절감장치가 경영비 절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사업자 모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2021년 양식어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 히트펌프)의 사업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해수열 히트펌프는 육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해 온수 혹은 냉수를 생산하는 장치다.

육상 양식장 냉·난방을 해수열 히트펌프로 대체할 경우 5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어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어종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창군은 실제 어가당 평균 난방비는 매년 약 49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연중 종묘생산과 양식이 가능해져 평균 5700만원의 매출 향상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가의 신청(자부담 20%)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기술지원)를 통해 토지와 환경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고창군청 라남근 해양수산과장은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확대 공급해 양식어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고창지역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